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인재 불사 나눔"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 천곡중학교 MOU 체결

성낙두 경남지사장 snakdu@hanmail.net



한마음선원울산지원은 1월 13일 울산지원 대법당에서 천곡중학교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상생의 목적과 협력을 위해 일반적으로 체결된다. 하지만 오로지 베풀기 위한 협약식이 개최됐다. 미래 인재를 위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은 1월 13일 울산지원 대법당에서 천곡중학교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을 통해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매년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협약식에는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스님, 김영순 천곡중학교 학교장 및 문윤근 교감, 천주현 울산지원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김영순 학교장과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오래 된 인연으로 맺게 됐다. 지난해 3월 천곡중학교로 발령 받은 김 교장은 30여 년 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수행했다. 발령 후 지원장 혜안 스님에게 전화하며 인사를 하던 중

매년 300만원 장학금 후원
총11명 모범학생에게 전달
울산 북구 학생 위해 20년
청소년 위한 버팀목 될 것

장학금이 언급됐고 협약이 맺어졌다.

천곡중학교 장학금 선정위원회는 3학년 8명, 2학년 2명, 1학년 1명 등 총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 선정은 성품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추천받아 전달한다.

혜안 스님은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나도 잘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해 이겨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순 교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무분별한 정보로 가치관의 혼동이 많고 방황을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시기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관심과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된다. 천곡중학교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데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인재불사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의 인재불사 후원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됐다. 20년 전 소아암환자를 위한 합창제가 진행됐다. 당시 대행선사는 울산 북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후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울산지원은 20년 동안 실천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은 울산시 북구 지역의 중 · 고 · 대학생들을 위해 북구청 장학진흥재단에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매년 동지 팥죽을 판매해 모은 기금은 호계고등학교와 매곡 고등학교 등에 지원됐다. 특히 호계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한 명은 서울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4년 동안 후원 받은 바도 있다.

혜안 스님은 "인재 불사를 진행하며 오늘처럼 협약식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외부 학교 학생들 뿐 아니라 선원 학생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도 꾸준히 이어 갈 것이다. 미래 인재 불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불사이다.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화합 소통 종단으로 발돋움을…

한국불교태고종 1월 8일 선암사서 신년 하례법회


신년하례법회 후 주요종단 소임자들이 종정 스님을 모시고 종단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신년하례법회 모습.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신축년 새해에는 선암사가 종단의 중심이 되자는 새 출발을 다짐했다.

지난 8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 대웅전에서 열린 '신축년 한국불교태고종 종정예하 배알 신년하례식' 에서 종정 지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금년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대 조사스님들의 갖은 노력과 지혜의 결과로 선암사가 종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태고종은 그동안 창종 이래 모진 어려움으로 한 번도 제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새로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무원 소임자의 노력으로 이제 바른 발걸음을 내기 시작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종단과 선암사가 일치되어 거대한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금년이 큰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신년하례법회는 종정 지허 스님,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중요 소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세알삼배,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상축, 종정예하 신년하례, 상호하례, 법어, 대종사법계 품서식, 신년사, 축사, 발원문이 이어졌다.

법어에 이어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태고종단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범적인 방역과 확산방지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호명 스님은 신년 종단 운영방침에 대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종단으로 운영을 하겠다. 총무원 소임자들과 함께 더욱 낮고 밝은 웃음과 마음으로, 친절하고 열린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각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선암사 수호를 위해 소처럼 뚜벅뚜벅 일해 나가겠다"고 밝히며,"이를 성취하기 위해 선암사 대중과 종도 모두가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해경 스님, 설운 스님, 남파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품서식과 제17 · 18 · 19세 태고종 종정을 역임한 혜초 대종사(1932~2020)의 법문집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어 선암사 부도전에서 혜초 스님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지성대종사 23주기 추모재

방역지침 준수하며 문도스님과 교역직 스님들만 참석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 대종사 2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1월 12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재는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직계 문도스님들과 교역직 대중스님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봉행됐다,

이날 예정된 포살법회도 코로나 확산방지와 당국의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취소됐다.

태허당 지성 대종사는 1930년에 태어나 19세에 사미계를 받고, 25세에 구족계를 수지한 뒤, 내장사 주지, 선운사 주지와 조계종 5~9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1997년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국보 미륵전 애니메이션 공개

소녀 '보리' 통해 마음의 안식처 강조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 일원)가 국보 제62호 미륵전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사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미륵전 홍보영상 '보리의 약속' 은 7분41초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이다.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수준이 높고 탄탄한 스토리 전개와 함께 금산사의 역사, 금산사 미륵전의 내력, 미륵부처님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보리의 약속' 은 엄마와 함께 금산사를 찾은 작은 소녀 보리를 통해 각박한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걱정과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나 마음편하게 쉬어갈수 있는 안식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보리의 약속' 의 내용은 거짓말을 하고 개구리를 괴롭히던 보리가 미륵전 벽화속으로 빨려들어가 벌받는 소를 만나고 동자승의 안내로 미륵전을 참배하면서 맑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한편, 사라져버린 보리를 찾던 보리엄마는 금산사 노스님으로 부터 "미륵전은 사람들이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자신을 맑게 만드는 곳이다" 며 "미륵전에서 진실된 말과 행동을 배우면 사람들은 점점 맑아질 것이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미륵부처님' 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미륵전에서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된 보리는 엄마에게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개구리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증심사, 코로나 극복 팥죽 불심 눈길

1월 14일 광주보훈병원에 500그릇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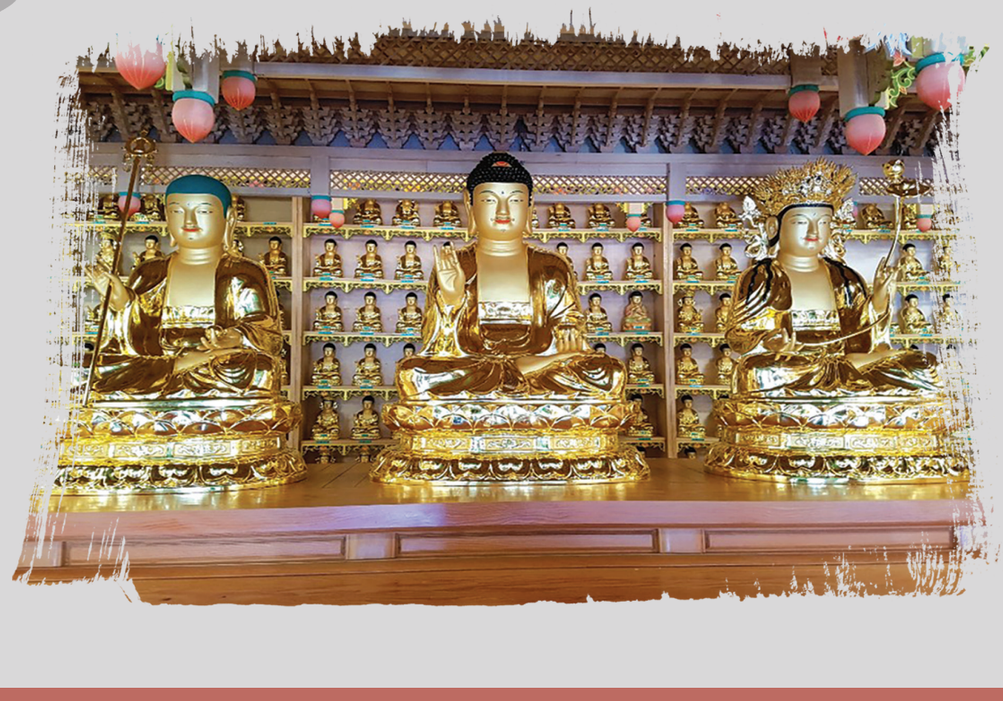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는 1월 14일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광주보훈병원을 찾아 단팥죽 500그릇을 전달했다. 이번 단팥죽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보훈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에게 불자들의 정성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증심사는 이번 단팥죽 제작을 위해 사전에 5명의 불자들이 밤과 인절미떡 등을 만들었다.〈사진〉

전달식에는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과 보훈병원 불교실 지도법사 혜오 스님, 김재휴 보훈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